

고흥군, 5G 드론 활용 '스마트 영농시대' 성큼

고흥 항공센터 일원 2023년까지 설비 등 구축 실증지원센터 올해 준공...핵심적 역할 담당

고흥군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5G 기반 드론활용 스마트 영농 실증·확산사업'의 2차년도 협약을 완료하고 드론상업화 실증지원센터 구축, 농작물의 실증 등 본격적인 핵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남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본 사업은 고흥 항공센터 일원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164억원(국비 80, 도비 32, 군비 48, 민자 4)을 투입하여, 5G통신을 기반으로 무인드론운용시스템 설비와 드론 성능평가 장비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기업지원 14건 기술이전 계약 1건 등 사업화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의 운영서비스 및 기술 고도화 기여, ▲네트워크 활동 12건 개최를 통한 52개 기관과 기술정보 교류 ▲데이터 활용 교육을 통한 34명의 전문분야 인력양성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드론 상업화 실증지원센터(이하 '실증센터')가 연면적 1,180㎡ 규모로 올해 준공될 예정이며, '실증센터'가 구축되면 5G통신망 구축과 농작물 실증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전국 유일의 드론 5G 전용망도 올해까지 구축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드

론의 실시간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통합관제시스템'과, 실시간 영상처리 정보를 저장 및 가공처리 할 수 있는 '빅데이터시스템'이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국내 최초로 벼, 마늘, 양파, 유자 4개 작물별 실증사업의 본격 추진을 통해 사계절 스마트 영농 플랫폼 구축의 첫 단추가 채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고흥군은 이번 사업으로 구축될 인프라를 433MHz기반 드론 운용통신 기술 개발사업, 스마트팜혁신밸리사업 등과 연계해 드론관련 다양한 시장을 창출하고 드론특화지식산업센터 기업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구상이다.

송기근 군수는 "전국 최초로 한국판 뉴딜정책과 부합된 스마트 농업기술의 융합으로 스마트 영농시대에 성큼 다가왔다"면서,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고흥을 국내 최대의 드론산업 중심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광양시, 노사문화 우수 기업 (주)메인테크 선정

광양시는 2021년 2분기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주)메인테크를 선정하고, 5월 3일 시청 회의실에서 시상 표창을 수여했다.

2005년 1월 설립된 (주)메인테크는 광양제철소 내 기계정비를 담당하는 기업으로 '직원이 회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자 경쟁력이며, 또한 주인이다'는 경영방침 아래 현재 16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주)메인테크는 직장협의회 등 다양한 노사협력 프로그램 운영, 매년 작업환경 및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안전성 확보, 직원들의 체계적인 능력개발 지원 등 상생의 노사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한 공적을 인정받아 선정됐다.

특히, 직원 능력개발 인프라 구축과 근로자들의 체계적인 경력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2018년에는 전국 숙련기술장려 모범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과 사업주 부문 유공자 선정 대통령 표창을 동시에 받은 바 있으며, 2020년에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다.

지역민과 더불어 성장하기 위해 등불봉사대 봉사활동, 자매결연마을 봉사활동, 1사 1하천 가꾸기 활동, 1사 1공원 관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화염 지역경제과장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은 노사 공동 노력의 결실로, 기업과 근로자의 사기를 높이는 사업이다"며, "앞으로도 '일하기 좋은 도시·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책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주)메인테크 회사는 시·읍·면·동 청사 및 마을회관 등 광양시 전역에 7월 31일까지 계약되며, 광양시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18개 노사문화 우수기업을 발굴해 시상하고 홍보했다.

광양=심종섭기자



(재)순천문화재단-(사)순천시자원봉사센터 '순천문화티움' 시민운동 업무협약 체결

순천문화재단(이사장 허석)은 최근 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사)순천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금옥)와 '순천문화티움' 시민운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나눔과 봉사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 ▲순천문화티움 운동의 전 시민 확산을 위한 참여 협조, ▲양 기관 주요 추진사업 협력 및 상호 홍보체계 구축 등 지역 문화예술 발전은 물론 나눔과 봉사문화 확산으로 순천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순천문화재단에서 추진 중인 시민참여 기부운동인 '문화티움'에 (사)순천시자원봉사센터에서 적극 협력함으로써 '문화티움운동'의 전 시민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순천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해 12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 이래, 수해복구 현장 지원, 사랑의 김장대축제 봉사, 송광면 크리스마스의 기적, 그리고 올해 순천형 권분 운동의 중심, 권분가게를 운영하며 자원봉사활동의 영역을 확대하며 나눔의 의미를 확산하고 있다.

순천문화재단 허석 이사장은 "순천문화티움 운동이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 문화예술인과 함께 상생할 수 있고, 문화도시 순천을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에서 적극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순천시 "대형폐기물 배출도 편리하게"

스마트폰 신청·배출수수료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7월 시행

순천시가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배출 신청이 가능한 스마트시스템을 도입하여 오는 7월부터 전격 시행한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모바일 신청 프로그램은 스마트폰을 통해 배출품

목, 배출위치 등을 작성하고,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수수료를 결제하면 생성되는 필증번호를 배출품목에 기재한 후 지정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또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도 카드결제 가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편의를 증진

한다.

시는 모바일 신청프로그램과 카드결제 시스템을 오는 6월까지 구축완료하고 7월부터 현장에서 적용할 계획이다.

청소자원과 김태성 과장은 "수수료 납부 방식을 다양화하고 스마트 기기로 대형폐기물 수거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처리하여 환경미화원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시민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여수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역량강화 교육 실시



여수시가 여성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운영하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역량강화 교육'이 지난달 30

일 이신도서관 다목적실에서 열렸다. 이날 교육은 시민참여단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위해 '성평등정책과 여성

친화도시 정책 이해'를 주제로 최유진 성별영향평가센터장(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열띤 강의를 펼쳤다.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역량강화 교육'은 전남여성가족재단이 위탁받아 6월 중순까지 우수지역 벤치마킹, 현장모니터링, 정책개선안 도출 컨설팅, 우리지역 여성친화도시 발전을 위한 브레인스토밍 등으로 8회 차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장병연 여성가족과장은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단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격려했다.

여수=오상호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약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간격거리를 두어 주세요!